

강진산단 입주 벤처기업 (주)로우카본 신사옥 첫 삽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황산화물 발생 저감 기술 세계 최초 개발...이산화탄소 흡수탑 기공식도

강진산업단지 입주기업인 (주)로우카본이 5일 '신사옥 및 이산화탄소 흡수탑 기공식'을 개최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기공식은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군수, (주)로우카본 이철 대표, 전남도 및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등 사전 초청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됐다. (주)로우카본은 지난 2018년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해 화력발전소의 가스

상 미세먼지 황산화물 발생을 원천 저감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내 벤처기업이다. (주)로우카본 본사 사옥은 강진산단 내 부지 715㎡(200여평), 지상 2층 규모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따른 화상회의 시스템 및 촬영 스튜디오 등을 구축해 오는 8월 완공된다. 이산화탄소 흡수탑은 로우카본의 혁신 기술인 CO2 전기·화학적 변환 촉매를 활용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90%

이상을 포집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로 생산시설 주변 부지에 설치 공사를 오는 5월 완료할 예정이다. (주)로우카본 이철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국내 환경 사업을 넘어 전세계 환경 사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환경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욱 군수는 축사를 통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기공식을 가진 기업으로, 강진에 본사를 두고 강진군 청년 21명을 고용하는 등 모범이 되는 기업이다"며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5일 강진산업단지에서 (주)로우카본테크 신사옥 및 이산화탄소 흡수탑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진=강진군 제공)

“해남군이 확 가까워집니다”

1조 372억원 확보 도로망 확충

해남군이 SOC사업인 국도와 지방도 확충사업 9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1조 372억원 확보하면서 도로망 확충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해남 서남부권으로, 국도77호선 화원면 매월리~신안군 압해도 도로건설공사가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총 연장 13.49km, 사업비 4,8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까지 2.73km 해저터널 등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특히 이와 연계되는 목포구등대~양화간(L=2.64km) 도로공사가 현재 82%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원~장수간(L=2.61km) 구간도 실시 설계중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화원면 매월리~목포구 등대~화원면 장수리~오시야노 관광단지까지 약 23km를 잇는 명품해안도로가 개통돼 서남부권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대흥사간(L=7.44km) 지방도 확장공사도 올 상반기로 사업착수가 앞당겨져 사업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해남-대흥사 구간과 연결되는 지방도 마산~산이간(L=16.7km)은 실시설계 중으로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이번 달 2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흥사-해남읍-마산-산이-영암 서호IC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구축되어 목포, 서해안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병목지점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육천 영춘 교차로와 남도 광역추모공원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마산 상등지구 교차로 개선 사업이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통로박스가 협소한 문내 석교 교차로는 기본계획 반영이 완료돼 사업비 30억원이 확보되었다. 기획재정부

완도군, 상춘객 급증 대비 코로나19 방역 아이디어 발굴

관광지 한 방향 거리두기·안심 손목밴드 제작 등 11건 추진

완도군이 나들이철을 맞아 상춘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자 지난 3월 25일 군수 주재 간부회의 시 주요 관광지 방역 대책과 비대면 관광지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아이디어는 총 58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검토 후 35건을 선정하였다. 35건 중에서도 시행 부서의 의견을 받아 지난 4월 5일 최종적으로 11건을 선정,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주요 관광지 유튜브 영상(비대면) 홍보, ▲주요 관광지 동선 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람 간 접촉 최소화하기, ▲발열체

크 확인 '안심 손목밴드' 제작, ▲식품접객업소 전 식탁 080 안심 전화번호 스티커 부착, ▲관광지 방역수칙 계도 요원 배치, ▲나들이 자제 캠페인 전개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 그리고 청정 완도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며 군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완도=이민혁 기자

장흥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55호 달성에 가속 붙다

2개 읍면씩 책임담당제 실시

장흥군은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추진에 나서 3월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 121개를 접수,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3년 이내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155호를 대상으로 축산사업소 소장을 포함, 팀장들로 2개 읍면씩 책임담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읍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달 반상회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장흥축협에서도 우시장에 "깨끗한 농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농장을 만듭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축산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 시설의 허가·신고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장흥=김도영 기자

평가 절차는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후 군의 서류 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검증을 거쳐 70점 이상이면 농립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증정되며, 자긍심 고취는 물론 각종 축산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장흥=김도영 기자



‘청정 진도 표고버섯’ 공판 시작

진표고 8.3톤 첫 경매...연간 32억원 소득 올려

진도군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지난 5일 첫 경매를 실시했다. 진도군 표고버섯유통센터에서 열린 경매에 전국표고버섯상사연합회와 진도군산림조합이 참여해 표고버섯 재배 31농가에서 생산한 건표고 8.3톤(3억여원 상당)을 경매했다. 전남 진도군은 연중 일교차가 10도로 매우 높아 표고버섯의 최상품인 화고 품종의 재배 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 해풍과 해양성 기후 등의 영향으로 맛과 향이 독특한데다 연중 생산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상품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며, 농가 소득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진도군은 늘어가고 있는 귀농·귀촌인과 기존 재배 농가의

표고재배 수요가 증가한만큼 표고자목, 종균, 하우스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표고재배산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등을 중심으로 현재 167개 농가가 연간 140여톤을 생산해 3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준공된 진도군 표고버섯유통센터는 현재까지 6차례 경매를 실시해 진도표고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표고버섯 자체 경매 시스템 정착으로 유통 비용과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경쟁력을 갖추었다"며 "표고버섯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